

호칭에 반영된 고려국왕들의 황제적지위

전 동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는 고구려나 고려와 같은 강력한 봉건국가가 오래동안 존재하였습니다.》

(《김정일전집》 제2권 218페이지)

고려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제일 강대하였던 고구려를 계승한 강력한 봉건국가였다.

고려가 봉건왕권에 기초한 강력한 국가였다는것은 10—12세기 고려국왕들의 황제적 지위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봉건국가들에서 최고주권자인 국왕들은 인민우에 군림한 최고의 권력자, 최대의 착취자였다. 국왕들의 지위는 국가의 통치형식과 특징 나아가서 해당 봉건국가의 지위를 규정하였다.

고려국왕들이 황제적지위에 있었다면 고려는 황제국들과 대등한 통치형식과 특징을 가지고 황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것으로 된다. 그런것만큼 고려국왕의 황제적지위를 밝히는것은 고려의 지위를 해명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나선다고 볼수 있다. 다시말하여 고려가 주변의 대국, 황제국으로 자처하는 나라들과 대등한 지위에 있었는가 또는 그 나라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는가를 규정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고려국왕들의 지위문제라는것이다.

물론 우리 력사학계에서는 이미 고려의 황제국으로서의 지위를 밝히였으며 또 여러 도서들에서도 고려국왕의 황제적지위를 언급하였다. 이 문제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조건에서 이 글에서는 호칭과 관련한 자료를 더 찾아내어 거기에 반영된 10—12세기 고려국왕들의 황제적지위를 밝혀보려고 한다.

10—12세기의 고려국왕들은 황제로 불리웠다. 고려사람들이 국왕을 황제로 불렀다면 그러한 국왕은 황제였음이 명백하다.

실지 고려국왕들이 황제로 불리운 자료들이 금석문과 력사책에 보이고있다. 그 자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869—956년 당시 국사)탑비》(경기도 려주에 있음.)의 뒤면: 《신미년(971년) 10월 21일 원화전(만월대에 있던 궁전)에서 대장경을 읽는 모임때 황제폐하(皇帝陛下)는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 대신들은 이에 우리 황제폐하를 마음속 깊이 존경하였다. …》*¹

② 《묘향산 석탑기》(정종 10년(1044년)에 건립): 《황제폐하(皇帝陛下) … 밝혀준다.》*²

③ 《고려사》: 《제왕(帝王) … 앞세워야 한다. … 지금 신하들이 임금의 높이를 모시면서 지나친 말로 부르고있다. 지금부터 모든 상소문이나 공문서들에 〈신성제왕〉(神聖帝王)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³

*¹ 《조선금석총람》 상 214페이지

*2 《조선금석총람》 상 264페이지

*3 《고려사》 권16 인종 16년 2월 임오

자료 ①은 고려의 4대 임금인 광종(950-975년)이 황제폐하로 불리웠으며 자료 ②는 고려의 10대 왕인 정종도 황제폐하로 불리웠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자료 ③은 고려의 17대 왕인 인종왕시기인 1138년에 임금이 일체 공문서와 상소문에 《신성제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지시를 주기 이전에 봉건관료들이 문건들에서 국왕을 《신성제왕》으로 표기하였음을 말하여준다. 여기서 《신성제왕》이라는 칭호는 인종에게 붙여진것이 아니라 고려의 1대 왕인 태조 왕건에 대한 호칭이었다. 그것은 태조 왕건의 첫 시호가 《신성》(神聖)이었기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국왕을 황제로 부르는가 왕으로 부르는가에 따라 국왕의 지위는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의 진, 한나라 이전시기에 존재한 하, 상, 주나라들을 비롯한 노예제국가들의 임금들은 왕으로 그후에 세워진 진나라를 포함한 이후의 최고주권자들은 황제라고 불렀다.

고려왕들이 황제로 불리웠기때문에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과 궁성, 경기지역도 그에 어울리게 불리웠다. 개경을 《황도》(皇都)로 고친 자료*¹와 국왕 성종이 왕육(성종의 삼촌)을 사수현으로 귀양보냈는데 내시인 고현이 그를 압송하고 사수현을 떠날 때 왕육이 지은 시에 경기를 《황기》(皇畿), 궁성을 《제성》(帝城)이라고 표현한 자료*²들은 그것을 증명하여준다.

*1 《고려사》 권3 광종 11년 3월

*2 《고려사》 권90 렬전3 종실1

이렇게 당시 고려사람들은 국왕을 황제로 불렀다. 일반적으로 황제는 《하늘의 아들》(天之子)로 자처하였다. 그런데 이 《하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고려전반기의 국왕들도 가지고있었다는것이 주목된다.

선행연구에서 고려국왕이 황제로 호칭된데 대해서는 언급되었으나 《성상》(聖上)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 《皇帝 - 秦以後天子之稱》(황제 - 진나라를 비롯한 그 이후 천자의 칭호.), 《聖上 - 謂天子》(성상 - 천자를 말한다.)(《사원》 상무인서관 1 207페이지, 1 345페이지)

국왕을 《성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한것은 고구려시기였다. 4세기 말경에 건설된 고국원왕릉벽화의 대행렬도에 《성상번》(聖上幡)(《성상》(聖上)은 황제를 의미하며 《번》(幡)은 기발을 의미한다.)이라는 글을 새긴 황제의 의장기가 보이는것은 그것을 증명하여준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 선대임금을 《황고》(皇考), 《황조》(皇祖), 《황왕》(皇王), 《선황》(先皇) 등으로 표기한것은 사망한 임금을 호칭한것이다. 《황고》라는 표현이 황제라는 의미를 담고있는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조선단대사》(고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5(2006)년 92페이지)

고려전반기에 있는 국왕들을 《성상》으로 표기한것은 《고려사》 세가부분(권2 태조 25년 5월, 권11 숙종 원년)에 2건, 《고려사》(권93 렬전 6) 최승로전에 성종을 성상으로 호칭한것이 15건, 《고려사》(권93 렬전 6) 채충손조에 목종을 성상으로 호칭한것이 1건, 《고려사》(권94 렬전 7) 김은부조에 현종을 성상으로 호칭한것이 1건 나타난다. 그리고 1022년(고려 현종 13년)에 세워진 《령취산 대자은 현화사비》에 성종과 목종을 대왕으로 표기하고 현종을 《성상》이라고 한것이 4건 보인다. 한편 1141년(고려 인종 19년)에 세워진 《묘향산 보현사비》에는 문종을 《성상》이라고 하지 않고 《성조》(聖祖)라고 한것이 2건 나타난다.

※ 력사책들과 금석문들에는 고려국왕들을 대체로 왕으로 표기하였으며 그밖에 대왕(大王), 전하(殿下), 성주(聖主), 상(上) 등으로도 쓰여있다.

이 자료들은 고려사람들이 10-12세기에 왕자리에 있는 제1대왕인 태조(재위 918-943년), 성종(재위 982-997년), 목종(재위 998-1009년), 현종(재위 1010-1031년), 문종(재위 1047-1083년), 숙종(재위 1096-1105년), 명종(재위 1171-1197년)왕들을 《성상》 또는 《성조》로 불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려사》에 국왕들을 왕이라고 표현한것이 많이 보일뿐 《성상》이라고 표기한것이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것은 대의명분을 표방하면서 《고려사》(1451년 편찬)를 편찬한 조선봉건왕조의 관료들이 고려국왕들을 《하늘의 아들》로 표현한 《성상》이라는 호칭을 거의나 삭제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자료상 《성상》이라는 호칭이 보이지 않는 고려전반기에 왕자리에 있는 임금들도 《성상》으로 불리웠을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고려사람들이 국왕들을 황제로, 《하늘의 아들》을 의미하는 《성상》으로 호칭하였다는것은 10-12세기의 고려국왕들이 황제적존재였다는것을 명백히 말하여준다.

고려전반기에 국왕들이 황제, 성상으로 불리운것은 국왕자신들이 황제들처럼 자처하였기때문이었다.

《고려사》에는 국왕이 자기를 황제들처럼 《짐》(朕)이라고 표현한 자료들이 적지 않게 쓰여있다. 《고려사》 권1 태조(1, 2)부분을 보아도 왕건이 신하들앞에서 자기를 《짐》이라고 표현한것이 6건정도 나타난다. 이것은 왕건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었다. 국왕들이 자기를 가리켜 《짐》이라고 한것은 태조 왕건이후의 고려국왕들속에서도 계속되었다. 그에 대하여서는 일일이 그 자료를 들지 않아도 알수 있다. 고려전반기는 물론 지어 원나라의 압박을 받던 1276년 당시 고려의 경효(충렬)왕에게 원나라의 다로가치가 《짐이라고 하니... 참월(분수에 넘친다는 뜻임.)한 일이 아닌가?》고 묻자 왕이 김방경, 박항으로 하여금 그것을 해설해주게 한 후 《다만 조상때부터 전해오는 례에 따를뿐이다.》^{*1}라고 말한 사실을 통하여 국왕들이 자기를 《짐》이라고 하는것이 조상때부터 써오던것이 명백하였기때문이다. 또한 10-12세기의 고려국왕들은 옷차림도 황제들이 입는 옷의 색깔과 같이하였으며^{*2} 황제국과 대등한 통치기구를 설치하고 제왕들을 두고 훈작제도와 3사3공제도, 벼슬등급제도 그리고 년호제정과 책봉제도 등을 실시하고 자기의 지시를 조(詔-《조서》)라고 하였으며 종묘(력대의 신주를 두는 왕실의 사당)를 세우고 불교를 믿는것도 황제들처럼 하였다. 성종왕은 《제왕(帝王)들은 누구나 다 종묘를 중축》하였으므로 고려에도 대표(종묘)를 세우게 하였으며^{*3} 문종왕은 제왕(帝王)들처럼 불교를 숭상하겠다^{*4}고 말하였다.

이렇게 제왕들처럼 행동하는 왕을 고려사람들이 황제와 대등한 황제, 성상으로 호칭하였을것은 명백하다.

*¹ 《고려사》 권28 경효(충렬)왕 2년 3월 갑신

*² 《고려사》 권72 여복지

*³ 《고려사》 권3 성종 12년 12월

*⁴ 《고려사》 권7 문종 3년 10월

고려의 국왕들이 황제와 다름없이 호칭되었기때문에 고려시기의 사람들은 자기의 국왕들을 황제들과 비교하여 평하였다.

고려후반기의 관료 리제현(1287—1367년)은 고려 1대왕인 태조 왕건이 송나라의 태조(960—975년)보다 못하지 않았다고 하였고*¹ 또 문종왕이 홍왕사를 궁궐보다 더 사치한 건물과 궁성보다 높은 성벽으로 쌓은것은 중국의 남북조시대의량무제(502—547년)와 자기가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것을 시위하기 위해서였다고 평하였다.*²

*¹ 《고려사》 권2 태조 26년 리제현찬

*² 《고려사》 권9 문종 37년 리제현찬

물론 국왕들에 대한 봉건관료들의 이와 같은 평가는 봉건유교사상에 립각하여 봉건 국가의 군주를 높이 내세운것으로서 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이렇게 국왕들이 자기의 거동은 물론 국가기구를 비롯한 제도와 정사를 황제의 격식대로 하였기때문에 고려사람들은 나라의 최고주권자를 황제로, 성상으로 호칭하였던것이다. 제반 사실은 10—12세기 고려국왕들에 대한 황제, 폐하, 성상 등의 호칭에는 고려국왕들의 황제적지위가 명백히 반영되어있다는것을 증명하여준다.

실마리어 성상, 보현사비